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김태현, 줄곧 우발적 살해를 주장

재판부 "피고인 주장 설득력 없어"

유족 "법 존재하는 한 항소 할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이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 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 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큰딸이 오후 10시에 귀가할 것을 알고도 5시39분

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다"며 "큰딸 피해자 범행을 시행하기 위해선 가족 중 누군가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흥기와 정테이프 등만 가지고 이웃 주민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쉽게 제압하는 상상은 어렵다"며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당시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은 흥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사형 선고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형 조과 범죄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 뜻 밝혔다"며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을 내려 달라며 소리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유가족은 범원 앞으로 이동해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살해된 큰딸 A씨의 고모라고 밝힌 B씨는 "법이 존재하는 한 항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하게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고인에 대한 유족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게 사형이 아니면 어떤 죄

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했다"며 "누구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 사라졌다"며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이나.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고종사촌이라고 소개한 C씨는 "최근 B사건 스토킹으로 인해 가족이 살해되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데도 사형을 선고한 선례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돌아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는 유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도구로 사용한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귀가하는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딸까지 참혹히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완도해경, 주말 섬마을 응급환자 잇따라 긴급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주말동안 완도 섬마을 응급환자 4명이 발생해 긴급 이송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 동부소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급처치 교육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지난 9일 오전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생활 속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미화어린이집과 업무협약(MOU) 체결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7일 남구 방림동 미화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현장간담회 개최

지난 6일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순천=김승호기자



'많이 아픈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47명으로 집계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의 검사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명진고

'직장 괴롭힘' 개선 요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명진고등학교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 "최근 광주지방노동청이 명진고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손모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해임·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격권 침해로 판단, 학교법원에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